

올해는 다르다...KIA 다시 뛴다

프로필 촬영 시작...새 번호·신인 합류로 새 시즌 준비 완료



‘호랑이 군단’이 새 시즌을 앞두고 기지개를 켜다. 15일 KIA 타이거즈의 안방인 챔피언스필드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 2026시즌

프로필 촬영이 진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선수들이 광주로 다시 집결했다.

KIA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프로필 촬영을 진행하고, 선수들에게 새 장비도 지급한다.

겨울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한자리에 모인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 번호, 새로운 시작으로 더 똘똘 모심의 선수들도 눈에 띄었다.

올 시즌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인 백넘버를 바꾼 선수들이 있다. 황대인이 최형우가 사용하던 34번을 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고, 한준수도 55번에서 25번으로 번호를 바꿨다. 박정우도 각별했던 선배 박찬호의 1번을 새로운 번호로 선택했다.

윤도현도 최원준이 남기고 간 16번을 달고 그라운드에 오르게 된다. 16번은 ‘타격의 신’ 김주찬 코치가 현역 시절 달았던 번호이기도 하다.

“16번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번호다. 가장 좋아하는 번호는 7번이다”라면서 웃은 윤도현은 “번호를 뺏기지 않게 번호에 맞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에비역’ 신봉으로 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선 포수 김선우도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누볐다.

상무에서 군 복무를 했던 김선우는 지난해 6월 전역한 뒤 올 시즌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선우는 “(고향) 강릉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올해 잘하려고 착실하게 준비했다”며 “상무에서 웨이트도 많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다. 가장 어려운 게 수비이기도 하다. 군대 가기 전에 1군에서 몇 경기를 해 봤으니까 그걸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랜만에 동료를 보니 반갑다.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더 좋다. 이외리, 권다결, 이영재도 있고 드



16번으로 번호를 바꾼 KIA 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이 15일 챔피언스필드 실내 연습장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다.

래프트 동기들이 많아서 같이 도와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웃었다.

고향팀에서 도전을 시작한 광주일고 출신의 내야수 이호연에게도 특별한 하루였다.

롯데와 KT에서 활약한 이호연은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진행된 KBO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날 이호연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36번 유니폼을 입고 KIA 선수로 시작을 알렸다.

이호연은 “꿈에 그리던 유니폼이다. 실감이 안 났었는데 유니폼 입으니까 이제서야 좀 실감 나는 것 같다”며 “KIA하면 응원인데, 상대로 유니폼 입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좋다.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다”고 웃었다.

또 “광주에서 시즌 준비를 한 것도 처음이다. (운)중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와서 많이 반겨줬다. 고등학교 때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 보자는 마음이다”며 “타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연봉 계약 완료

김호령

꽃바람

김도영

칼바람

‘반전의 시즌’ 김호령, 212.5% 수직상승 2억5000만원

김도영, 50% 삭감...성영탁 300% 올라 1억2000만원

KIA 타이거즈의 2026시즌 연봉 계약이 마무리됐다. 김호령이 웃고 김도영이 울었다.

KIA는 15일 올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과의 계약을 끝냈다. 25명의 선수가 인상된 연봉에 사인을 했고 7명은 동결, 16명은 연봉이 삭감됐다.

지난해 부상으로 30경기 출장에 그쳤던 ‘슈퍼스타’ 내야수 김도영의 연봉이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깎이면서 가장 높은 삭감률(50%)을 기록했다.

반전의 시즌을 보낸 외야수 김호령은 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연봉이 수직 상승해 야수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봉 인상률은 212.5%다.

팀 내 최고 인상률은 투수 성영탁이 기록한 300%다.

프로 2년 차에 1군 무대에 데뷔해 ‘샛별’이 된 성영탁은 3000만원에서 9000만원 인상된 1억20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성영탁은 지난해 팀 내 데뷔 최다 무실점 이닝을 잡아치우는 등 45경기에 나와 52.1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1.55, 3승 2패, 7홀드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성영탁이 데뷔 3년 차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고, 김호령과 함께 오선우도 처음 역대 연봉을 받게 됐다.

야수진의 줄부상으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오선우는 3400만원에서 252.9%오른 1억

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FA와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투수 최고 연봉자는 ‘포커페이스’ 전상현이다. 전상현은 3억원에서 1000만원 인상된 3억1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

전상현은 지난해 KIA 불펜진 중 가장 많은 70이닝을 책임지면서 평균자책점 3.34, 7승 5패 1세이브 25홀드를 올렸다.

‘루키’ 김태형은 3000만원에서 100% 인상된 6000만원을 받는다.

이 외에 지난해 ‘개근생’ 내야수 김규성이 6500만원에서 38.5% 인상된 9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내야수 윤도현은 32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연봉이 오르면서 71.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포수 주효상도 4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인상된 5500만원에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재 시즌 첫 골...뮌헨 17경기 무패 행진

분데스리가 FC뮌헨에 3-1 역전승
15승2무 이어가며 선두 지킴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9)가 시즌 첫 골을 터트리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개막 무패 행진을 이끌었다.

뮌헨은 15일 독일 뮌헨의 라인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5-2026 독일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뮌헨에 3-1로 역전승했다.

이로써 뮌헨은 시즌 개막 이후 리그 17경기에서 15승 2무(승점 47)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를 질주했다. 2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승점 36·10승 6무 1패)와는 승점 11차다.

승리의 주역은 김민재였다.

선발 출전해 요나탄 타와 중앙수비를 맡은 김민재는 1-1로 맞서 있던 후반 26분 결승골을 터트렸다.

상대 왼쪽에서 코너킥을 얻은 뮌헨은 짧은 패스로 득점 기회를 엿봤고, 루이스 디아스가 골문 오른 쪽으로 올린 크로스를 일본인 수비수 이토 히로키가 허다로 연결하자 골문 앞에 있던 김민재가 머리로 받아 넣었다.

김민재의 올 시즌 공식전 1호 골이었다.

앞서 김민재는 지난해 8월 열린 분데스리가 시즌 개막전 RB 라이프치히와 홈 경기(뮌헨 6-0 승)에 교체 투입돼 도움 하나를 기록했을 뿐이다.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그라운드를 밟은 것은 3경기 만이다.

김민재는 허벅지 근육 통증과 치아 문제 등으로 최근 2경기에는 결장했다.

그러나 새해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고 시즌 첫 골도 터트리며 완벽한 회복을 알렸다.

뮌헨은 전반 41분 뮌헨의 린톤 마이냐에게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다. 전반 50분 세르주 그나브리의 골로 1-1로 균형을 맞춘 뮌헨은 후반 들어 김민재의 공수에 걸친 활약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김민재는 후반 10분 철벽수비로 추가 실점을 막았다.

이후 김민재는 후반 26분 직접 승부를 가르는 결승골까지 책임졌다.

/연합뉴스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5-2026 독일 분데스리가 1.FC 뮌헨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왼쪽)가 팀의 2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